

김영록 지사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최선”

장성 독거노인 가구 방문

현장 점검·애로사항 청취

5만5,600가구 111억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매서운 한파까지 겹쳐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가 난방 실태와 가스 안전, 비상통신망 등 안전 체계를 직접 살피고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장성 삼계면에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난방 온도를 체크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은 후 안전 겨울나기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난방비 폭

탄’으로 서민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이뤄졌다. 앞으로도 서민의 삶 현장을 직접 방문·체험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서민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곳에도 난방비 148억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마련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외에 전남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도내 시설 879곳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 중 정원 50명아하는 30만원, 51~100명은 50만원, 100초과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용시설 지원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이다.

전남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일선 시·군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위기가구 지원 콜(120)을 24시간 운영 중인 가운데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달려가는 행복시책을 펼치고 있다.

/임채민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장성 삼계면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가구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지난해 수출액 494억 달러 ‘역대 최고’

전남도는 26일 “지난해 도내 전체 수출액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방역통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보다 15.5% 상승한 4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국 수출 증가율 6.1%를 크게 웃돌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수출 비중도 6.6%에서 7.2%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대외 여건 악화로 전국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전남도는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수출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업 담보완전 특례보증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수출 피해기업(공산품)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긴급 지원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그 결과 공산품 수출은 488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쌀 긴급 수출지원, 상설 판매장 활용 ‘김치의 날’ 행사, ‘남도장터유एस(US)’ 자체 쇼핑몰 개설, 시·군 연계 판촉행사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쳤다.

다각적인 수출 지원으로 유자차 등 가공식품은 5.6% 증가했으나 전남 농

수산식품의 최대 수출 품목인 김의 경우 해외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가공품이 1억 9,160만 달러(5.9%) 줄어 총 수출액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5억 6,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남도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89억원을 들여 수출 역량 강화 및 농수산물 해외 주류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과 인증획득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임채민 기자

광주시 서민정책, 소득 늘리고 지출 줄인다

고금리·고물가 한파 극복

계층별 맞춤 일자리 지원

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광주시가 고금리·고물가 경제 한파에 맞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서민 경제안정 정책을 펼친다.

광주시는 26일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기조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경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민 경제안정 주요 사업 19건(신규 6·확대 9·지속 사업 4)에 약 1,341억원을 투입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일자리 정책, 주거·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로 인한 가계불가 부담 지속, 민간소비 위축, 교육·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광주시는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노인, 중장년, 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축소 위기에 놓였던 노인일자리 시비 86억원을 추

가로 반영한 덕분에 노인일자리 고용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및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빚고을50+ 일자리 지원은 전년과 비교해 두배 이상(160명→360명) 늘려 고용안정을 꾀한다.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도 실시한다.

또 광주시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받은 사람)’, 저신용자 등 고금리 상황에 들라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자가 재기·회복할 수 있도록 ‘빚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 사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빚고을론은 신용회복위원을 받아 변제계획 이행 중인 자, 미소금융은 신용 6등급 이하가 대상이다.

청년이 금융위기 상황을 버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채무보유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은행’을 확대한다. 연체 해소를 위해 기존 175명(1인당 80만원)에서 200명(1인당 100만원)으로 인원수와 금액을 높였다.

또 학자금 대출 신용유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대출·채무조정·복지·주거

등 서민생활 통합 상담지원 창구인 ‘재무힐링행복상담센터’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청년 등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50%→100%) ▲청년맞춤형 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신혼부부 등 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 정보통신 기기 등을 보급한다.

이밖에 취업비용 지원책인 청년드림수당을 확대하고 출산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 할인,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주재희 시 경제재정실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확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시행해 서민의 삶을 보듬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하기 학원 114 등쳐보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물부족 해결 ‘맞손’

광주와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물 부족·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장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이용빈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배덕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진명호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지역 가뭄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용수 중심 물관리 체계의 개선, 물 공급 시설 적절성 재평가, 해수담수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기 상황 돌파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와 전남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은 전날 기준 주당 27%, 동북댐 26% 등을 보였다.

농업용수 저수율도 전남은 52.4%로 전국 평균(71.1%)보다 낮다.

/김용현 기자

주철현,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사진)은 2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 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



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